

# HAPPEN과 SEEM에 관하여

朴 泰 化

## 1. 序 言

이 글에서는 영어의 동사 happen과 seem을 完全한 자동사 內容語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기로 한다.

학교 문법에서 또 많은 辭典에서는 happen과 seem을 다룰 때에 그 자체의 構造와 內容을 重要하게 다루기 보다는 to-infinitive 構文과 관련지어 다루는 것을 더 強調하고 있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happen과 seem의 용법은 이 동사들 자체의 독립적인 내용이 다루어지는 것 보다는 happen to—, seem to—처럼 to-infinitive 構文에 묶어서 idiomatic formula<sup>1)</sup>속의 機能語로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 처럼 오해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Happen이나 seem이 대개 문장에서 쓰일 때 to-infinitive 構文 앞에 배열되어 to-infinitive 構文과 이어지는 예가 많고, 또 表面排列 狀態에서 意味과 악이 다른 동사들과는 같이 않은 特徵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이 동사들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happen to—, seem to— 처럼 묶어서 다루어도 된다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 이런 동사들과 to-infinitive 構文과를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重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더구나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happen과 seem을 happen to—, seem to—처럼 묶어서 다루는 것은 happen과 seem에 흔히 이어지는 to-infinitive 構文이 未解決인 데서 비롯된 錯覺임을 알게 될 것이며, to-infinitive 構文이 精確하게 분석됨에 따라 happen과 seem의 lexical verbs로서의 內容도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른바 半助動詞(semi-auxiliary verbs)<sup>2)</sup>의 概念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이와 類似한 것들이 學校文法과 傳統文法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살펴 보고, 그 다음 傳統文法 學者에 依한 意味있는 주장중 부분적으로 나타난 端緒를 根據로 生成文法論者들이 이루어 놓은 深層構造와 表面構造를 區別處理하는 方法에 따라 happen과 seem을 분

1) Otto Jespersen,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9) p.24. Jespersen은 Free Expression과 Formula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How do you do?—Formula

(2) How is your sister?—Free Expression

위의 문장(1)은 사람을 처음 소개 받았을 때 공식으로 쓰이는 말이지 그 문장속의 시제나 인칭이 변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문장(2)는 How was his sister? 처럼 시제, 인칭을 자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2) Ronald Quirk, Sidney Greenbaum, Geoffrey Leech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New York: Seminar Press pp.66—70

析應用하고서, 이 동사들을 完全한 獨立的인 自動詞로 理解함이 매우 중요하고도 타당함을 밝히려고 한다.

## 2. 이른바 Semi-auxiliary Verbs

學校文法에서는 happen과 seem이 to-infinitive構文과 쓰일 때에 이 동사들의 lexical meaning을 거의 무시하고, to-infinitive構文의 main verb에 隸屬吸收 되는 機能的인 面의 用法이 더 重要的 것 처럼 다루고 있다. Happen과 seem이 담고 있는 特徵을 이 動詞들 自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happen to—, seem to—로 묶어서 idiom으로 보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려는 흔적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happen과 seem이 흔히 to-infinitive構文과 같이 쓰이고 있고, 또 이 동사들의 notional subject가 특이한 데서 비롯된 것 같다.

Quirk(1972 : 66-68)는 happen과 seem을 happen to—와 seem to—로 묶어서 semi-auxiliary verbs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1) He should see the play.
- (2) He had seen the play.
- (3) He was seeing the play.
- (4) He saw the play.
- (5) He happened to see the play.
- (6) He expected to see the play.

위의 문장 (1)~(6)을 첫째 Yes, No 의문형으로, 둘째 “Not” 부정형으로, 셋째 “So”를 사용하는 Pro-form으로 轉換시키면 각각 다음과 같이 된다.

### Yes, No 의문형

- (7) Should he see the play?
- (8) Had he seen the play?
- (9) Was he seeing the play?
- (10) Did he see the play?
- (11) Did he happen to see the play?
- (12) Did he expect to see the play?

위 문장 (7)~(12)의 변형에서 볼 때 문장 (7)(8)(9)에서는 주어와 조동사(should, had, was)의 위치만 바뀌었는데, 문장(10)(11)(12)에서는 모두 Did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다.

### Not 부정형

- (13) He shouldn't see the play.
- (14) He hadn't seen the play.
- (15) He wasn't seeing the play.
- (16) He didn't see the play.
- (17) He didn't happen to see the play.
- (18) He didn't expect to see the play.

위 문장 (13)(14)(15)는 “Not”를 각기 should, had, was에 직접 부쳐 shouldn't, hadn't, wasn't로 부정형이 되는데 문장 (16)(17)(18)은 did의 도움을 얻어 부정형이 된다.

### Pro-forms with "So":

- (19) He should see play and so should she.  
 (20) He had seen the the play and so had he.  
 (21) He was seeing the play and so was she.  
 (22) He saw the play and so did she.  
 (23) He happened to see the play and so did she.  
 (24) He expected to see the play and so did she.

위 문장(19), (20), (21)은 Pro-forms로 되면서 자기 앞에 있는 밑줄친 부분이 그대로 so와 함께 쓰여 so should, so had, so was로 쓰였는데, 문장(22), (23), (24)에는 앞에 있는 밑줄친 동사가 그대로 so와 함께 쓰이지 않고 did가 대신 쓰였다.

위에서 예시한 세가지 operational tests에서는 happen은 분명히 see와 expect와 같은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lexical verbs에 속하는 것이지, should, had, was와 같이 조동사는 아니다.

그러나 다음 처럼 passive forms를 보면 happen은 to와 함께 happen to—로 묶여서 auxiliary verb의 변형과정과 같다 :

### Passive Forms:

- (25) The play should be seen by him.  
 (26) The play had been seen by him.  
 (27) The play was being seen by him.  
 (28) The play was seen by him.  
 (29) The play happened to be seen by him.  
 (30) \*The play expected to be seen by him.

위의 문장(25)~(30)에서 그 변형 내용을 살펴 보면, 문장(25), (26), (27)은 자기 active에서 쓰이던 should, had, was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be seen, been seen, being seen이 와서 passive로 되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문장(29)도 active에서 쓰인 happened to가 앞에 아무런 동사도 오지 않은채 be seen이 뒤에 이어지면서 passive로 되었지만, 문장(28)은 active에서 쓰인 동사 saw 앞에 조동사 was가 온 다음 seen으로 변하여 was seen이 되었고, 문장(30)은 비문장이다. 그러니까 Yes, No 의문형, Not부정형, "So" Pro-form에서는 lexical verbs와 같던 happened가 passive로 처리 될 때에는 happened to—로 묶여서 조동사 should, had, was와 같은 위치에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Quirk는 semi-auxiliary Verb라고 규정한 것이다.

위 문장(25)와 (29)가 passive에서 처리되는 모양을 다시 한 번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He should see the play ⇒ (25) The play should be seen by him  
 (5) He happened to see the play ⇒ (29) The play happened to be seen by him
- 

이상과 같은 operational tests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내세워 Quirk는 semi-auxiliary verbs에 속하는 것들로서 happen to—, seem to—, 이외에도 have to—, come to—, fail

to—, tend to—, appar to— 등을 틀에 넣어 정리해 놓았다.<sup>3)</sup>

Quirk의 이와 같은 semi-auxiliary verbs의 개념은 passive transformation에서는 다소意味가 있을 지는 모르나, happen이나 seem을 happen to—, seem to로 처리함으로써 해서 벗어지는 문제가 매우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happen과 seem을 happen to—, seem to— 처럼 처리하는 것은 문법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happen과 seem의 해결도 어렵고 to-infinitive 構文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Happen to—, seem to—가 idiomatic expression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은 오히려 문제점을 해결하기 보다는 그것을 흐리게할 뿐이다.

### 3. 이른바 Split Subject

앞에서 본 것처럼 Quirk는 happen과 seem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semi-auxiliary verbs라는 명칭을 붙이면서 內容語로의 취급을 소홀히 한데 비해서 Jespersen과 Hornby는 happen과 seem을 to-infinitive 構文과는 분리해서 다루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한 흔적이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Jespersen과 Hornby는 이런 happen이나 seem등의 動詞들을 완전히 獨立된 內容語로 다루고 있는 면이 매우 흥미롭다.

Jespersen은 그의 저서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에서 happen과 seem은 보통 동사와는 달리 두 가지의 주어를 동시에 취하는 동사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설명은 happen과 seem을 to-infinitive 構文과는 분리하여 처리해야 마땅하다는 말이 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happen과 seem은 한 편에서는 grammatical subject를 취하고, 또 한편에서는 notional subject를 취하는 동사로 이해를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sup>4)</sup> 예를들면 :

(31) He happened to fall.

(32) He is sure to fall.

(33) He is believed to fall.

위 문장에서 보면, 모두 “He”가 주어의 위치에 있어서 주어이기는 하나 그것이 happened, is sure, is believed를 완전히 술어동사로 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Who happened? \*Who is sure? \*Who is believed?와 같은 문장이 성립될 수 없음에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장(31)의 happened, 문장(32)의 is sure, 문장(33)의 is believed의 notional subjects로서는 He와 같은 animate subjects는 될 수 없다. 그런데 What happened? What is sure? What is believed? 등은 완전한 文法的인 文章이다. 그러니까 happened, is sure, is believed의 주어는 what과 같은 non-animate subjects가 올 경우 이것은 grammatical subjects이면서 동시에 notional subjects인 것이다. 그러면 animate subjects가 주어의 위치에 오게 되면 notional subjects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Jespersen은 주어가 나뉘어져 있기 때

3) Quirk et al. p.68.

Quirk는 Semi-auxiliaries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 시키고 있다. Semi-Auxiliaries를 Subclass (i)과 Subclass(ii)로 구별하였는데, Negation에서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구분하였다.

Subclass(i): be about to, be apt to, be bound to, be going to, be liable to, be sure to, be to, had better, have to, come to, fail to, get to, tend to,

subclass(ii): be certain to, be likely to, appear to, happen to, seem to, turn out to.

4) Jespersen (1969),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pp.107—108.

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split subjects가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의 문장 (31)(32)(33)의 happend, is sure, is believed의 split subject는 unidiomatic expression 이기는 하나 모두 He-to fall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올바른 이해가 된다는 것이다.

Jespersen은 이런 그의 주장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다음에 예를 드는것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happen과 seem이 쓰이는 構造의 分析을 시도하기도 했다.<sup>5)</sup>

(34) She happened to notice it.

$\frac{1}{2}$ Subject Verb  $\frac{1}{2}$ Subject.

(35) She failed to notice it. [ $\frac{1}{2}$ S V  $\frac{1}{2}$ S(IO)]

(36) She is sure to notice it. [ $\frac{1}{2}$ S V  $\frac{1}{2}$ S(IO)]

(37) She seems to notice it. [ $\frac{1}{2}$ S V  $\frac{1}{2}$ S(IO)]

위의 문장(34), (35), (36), (37)에서 표시된 바에 의하면, happened, failed, is sure, seems의 notional subjects는 모두 <she—to notice it>가 되는데, 그것이 happened, failed, is sure, seems등을 사이에 두고 모두 갈라져 있으므로 앞에 있는 subject는 그 一部로서  $\frac{1}{2}$ subject가 되는 것이고, to-infinitive 構文은 그 나머지인  $\frac{1}{2}$  subject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의 문장(34), (35), (36), (37)을 이해하는 데는 먼저 각기 (34)\*[She—to notice it] happened (35)\*[She—to notice it] failed, (36)\*[She—to notice it] is sure, (37) [She—to notice it] seems라는 과정을 머리 속에서 생각한 다음, 변형된 표면 구조를 해석해야 바른 순서가 된다는 것이다.

Jespersen의 위와 같은 분석방법은 happen과 seem이 쓰이는 문장에서, 이 동사들과 to-infinitive 構文을 해결하는데,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다 할지는 모르나, 적어도 표면에 나타난 대로 문장을 해결하려는 태도에는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happen과 seem을 to-infinitive 構文과는 분리 처리해야 옳게 파악하게 된다는 방향제시는 충분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Happen과 seem을 happen to—와 seem to—로 묶어서 처리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는 바로 to-infinitive 構文이 未解決인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필자의 의심이 풀릴 수 있었다고 감히 가정할 수 있다면, '그 해결의 端緒는 바로 Jespersen의 이와같은 split subject 개념에서 찾게 되었음을 밝히고 싶다.

Hornby는 happen과 seem을 impersonal verbs라는 명칭을 부쳐 다음 처럼 설명하고 있다<sup>6)</sup>

(38) I happened to be out of London at that time.

(39) Mr. White seems to be heavily in debt.

위의 문장(38)과 (39)에서 happened와 seems의 주어위치에는 각각 I와 Mr. White가 있지만, 그것들은 주어가 될 수 없다. 그것들이 단독으로 주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문장(40)과 (41)과 같은 unacceptable sentences의 과정을 거쳐서 생각하면 밝혀 진다는 것이다.

(40) \*That I was out of London at that time happened.

5) Jespersen (1937), *Analytic Syntax*(London; George Allen & Unwin), pp. 56—58.

6) A.S. Hornby (1969), *A Guide to Patterns and Usages in English*(Tokyo: Kenkyusha), p.62, p.80.

(41) \*That Mr. White is heaily in debt seems.

위의 문장(40)과 (41)의 동사 happened와 seems의 주어는 각각 밑줄친 부분 That I was out of London at that time과 That Mr. White is heavily in debt가 되지만 이 문장들이 acceptable sentences로 되려면 밑줄친 부분(Clauses or Phrases)들이 각각 happened와 seems 다음으로 옮겨져야 하고 주어의 위치에는 preparatory "It"를 삽입하여 다음 문장 (42)와 (43)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2) It happened that I was out of London at that time.

(43) It seems that Mr. White is heavily in debt.

그런데 위의 문장(42)의 that clause의 주어 I가 preparatory "It"의 자리에 오게되고, 문장(43)의 Mr. White가 그 자리에 오게되면, that clause는 자기 to-infinitive 構文으로 변하고 주어의 자리에 간 "I"와 "Mr. white"는 to-infinitive 構文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어 자기 다음 처럼 문장 (38)과 (39)로 된다:

(38) I happened to be out of London at that time.

(39) Mr. White seems to be heavily in debt.

위의 문장(38)의 "I"와 (39)의 Mr. White는 자기 happened와 seems의 주어의 위치에는 있지만 그 위치는 preparatory "It"의 위치이고, 또 비록 그 위치에 있더라도 to-infinitive 構文의 주어이지 happened나 seems의 단독주어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happened와 seems는 personal subjects를 주어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동사들은 impersonal verbs라고 규정한다는 것이다. Hornby의 이런 설명 방법도 happen과 seem을 to-infinitive 構文과 분리 처리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면 매우 중요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든다.

Jespersen은 happen과 seem을 split subjects를 취하는 동사로 다루고 있고, Hornby는 이 동사들을 impersonal verbs라는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用語는 서로 다르지만 happen과 seem을 to-infinitive 構文과는 분리해서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접근방법에서는 서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Jespersen과 Hornby의 분석에서 happen과 seem을 to-infinitive 構文과 분리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합리적인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 설명 내용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무리가 나타나고 있다.

Jespersen의 split subject를 설명하는 例文 가운데 아래와 같은 문장들이 있다.<sup>7)</sup>

(44) The cage was found empty.

(45) He was made angry by her stubbornness.

(46) The window was broken open.

위의 문장 (44), (45), (46)의 split subject는 각각 The cage—empty, He—angry by her stubbornness, The window—open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unidiomatic expressions로 나타난 split subject와 동사부분과를 연결해서 표시해 보기로 하자:

(47) \*The cage—empty was found.

7) Jespersen, *Essentials* p.312.

- (48) \*He—angry by her stubbornness, was made.  
 (49) \*The window—open was broken.

위의 배열에서 볼 때, (47)과 (48)은 그 split subject와 동사의 관계가 어색하기는 하나 개념을 파악하는 입장에서 보아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49)에서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다시 아래와 같이 표시해 보자.

- (50) \*That the window was open was broken.  
 (51) \*It was broken that the window was open.  
 (52) ?The window was broken to be open.

위의 문장(51)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고, 문장(52)는 어색한 것 같다.

문장 (44)와 (46)이 과연 같은 構造인가를 살펴 보기 위해서 이것들의 active sentences를 놓고 생각해 보자.

- (53) They found the cage empty.  
 (54) They broke the window open.

위의 문장 (53)의 found와 empty의 관계는 문장 (54)의 broke와 open의 관계와는 같지 않은 것 같다. 문장 (53)에서는 : 'They'가 'found'해서 그 결과로 'the cage'가 'empty'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문장 (54)에서는 : 'They'가 'broke'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the window'는 'open'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문장 (53)의 동사 found는 형용사 empty와 관계가 멀고, 오히려 empty와 관계가 가까운 것은 the cage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문장은 "They found that the cage was empty"가 된다. 그런데 문장(54)의 경우 broke와 open의 관계는 매우 가까운 것 같다. 다시 말해서 broke와 open의 관계는 split verb<sup>8)</sup>의 관계처럼 보인다. 이 문장은 "They broke open the window."로 써도 비문법적 문장은 아니다. 그리고 문장 (53)과 (54)의 목적어 부분이 비교적 길어질 경우에는 다음 문장 (55)와(56)처럼 쓰이는 것도 사실이다.<sup>9)</sup>

- (55) They found the cage which was made of iron empty.  
 (56) They broke open the window which was made of iron.

지금까지 Jespersen의 split subject의 개념과 Hornby의 impersonal verb의 개념을 살펴 보았다. Hornby의 impersonal verb의 설명은 예문 제시에 있어서 틀에 박아 표면구조에 치중한 나머지 내면구조 문제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인다. 이에 비해 볼 때 Jespersen은 세밀하게 분석을 해 놓았다. Happen과 seem을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달하지 못했으나 방대한 자료를 제시했고 적어도 문장을 表面排列에서만 다루려는 시선을 內面構造에 돌리도록 지시를 한 것이다. 그러나 Jespersen도 Hornby도 to-infinitive 구문을 해결하는데에 重要性을 특히 강조하지는 않았고, 바로 이것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重要視하는 데는 소홀했던 것 같다.

8) 여기서 split verb는 필자가 split subject라는 것에서 idea를 얻어서 임의로 쓴 말이다.

9) Hornby, *Patterns and Usages* pp.32-33

#### 4. 生成文法에서 다루진 To-infinitive 構文

앞에서 본 바에 따르면, happen과 seem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to-infinitive構文의 해결 방법과 깊은 관계가 있는것으로 생각이 든다. To-infinitive構文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함으로써 happen과 seem을 happen to—, seem to—로 묶어서 다루게 되고, 또 무리한 分類가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to-infinitive 構文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happen과 seem의 lexical verbs로서의 構造도 윤곽이 밝혀질 것으로 보고, 生成文法에서 취급된 to-infinitive 構文을 검토하기로 한다.

生成文法論者들은 to-infinitive構文을 한결같이 embedded sentence로 규정짓고 다루고 있다. 이 embedded sentence라는 것의 概念은 深層構造에서 볼 때는 表面構造上的 matrix sentence와 같은 構造를 갖추고 있음을 意味한다. 그러니까 embedded sentence인 to-infinitive構文은, “어떤 to-infinitive 構文이든지 underlying deep structure에서는 반드시 주어와 있음을 뜻한다.”<sup>10)</sup> 이 주어의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데에서 to-infinitive構文이 해결되고 그에 따라 happen과 seem도 분리 처리될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다.

To-infinitive 構文을 살펴 보는데에는 Underlying deep structures, Embedding rules, To-infinitive construction separation rules, Deletion rules 順으로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의도상 적절할 것 같아서 그러한 순서로 전개하기로 한다.

Chomsky는 Aspects에서 表面構造와 深層構造를 區別해서 문장을 보아야하는 것을 말하면서 아래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sup>11)</sup>

(57) I persuaded a specialist to examine John.

(58) I expected a specialist to examine John.

위의 문장 (57)과 (58)의 表面排列은 둘다 똑 같고 다만 문장 (57)에는 동사로 persuaded가 쓰였고 문장(58)의 동사는 expected가 쓰였다는 차이 밖에는 없다. 그렇다고 위의 문장 (57)과 (58)의 構造가 같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 이유는 다음 문장(59)와 (60)처럼 위의 문장(57)과 (58)의 밑줄친 부분을 passive로 고쳐서 보면 알 수 있다.

(59) I persuaded John to be examined by a specialist.

(60) I expected John to be examined by a specialist.

위의 문장(59)는 문장(57)의 일부를 passive로 변형 시킨 것이고, 문장(60)은 (58)을 그렇게 변형 시켜 놓은 것인데, 문장(58)과 문장(60)은 뜻의 변화가 없는데, 문장(59)는 (57)과는 뜻이 다르다. (57)에서는 내가 설득한 사람이 a specialist인 반면에 (59)에서는 내가 설득한 사람이 John이다. 이러한 의미상 차이가 있다는 것은 (57)과 (58)이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전통문법 학자들도 위와 같은 구조상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 관심을 표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Zandvoort는 아래와 같은 문장들을 예를 들어 위와 같은 구조상의 차이에 관

10) 필자의 석사논문 “A Study on Infinitive Constructions in English”(Seoul National University, 1972) 결론부분에서 밝힌 것임.

11) Noam Chomsky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The MIT Press), p.p.22-27



심을 표명 했다.<sup>12)</sup>

- (61) Allow me to congratulate you.
- (62) I like boys to be quiet.
- (63) I hate you to talk like that.

위의 문장(61)과 문장(62), (63)과는 구조가 같지 않다. 왜냐하면 문장(61)에서는 Allow를 따로 독립시켜도 to congratulate you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장(61)에서는, Allow의 목적어는 me와 to congratulate you가 따로 구별된다. 그런데 문장(62)의 경우, 주어 "I"는 boys를 지극히 싫어하는 여학교 교장일 수도 있으며, 문장(63)의 주어 "I"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인 you에게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의미론적인 입장에서 설명은 했지만 이런 말은, 문장(61)의 Allow의 주어는 me와 to congratulate you가 각각 목적어 인데 문장(62), (63)에서는 이와는 달리 like의 목적어는 boys가 단독으로 될 수 없고 boys to be quiet 전체가 되고, hate의 목적어도 you가 아니라 you to talk like that가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런데 이런 구조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는 않았을 뿐 이런문제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Chomsky가 제시하는 underlying deep structure의 개념은 Akmajian이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보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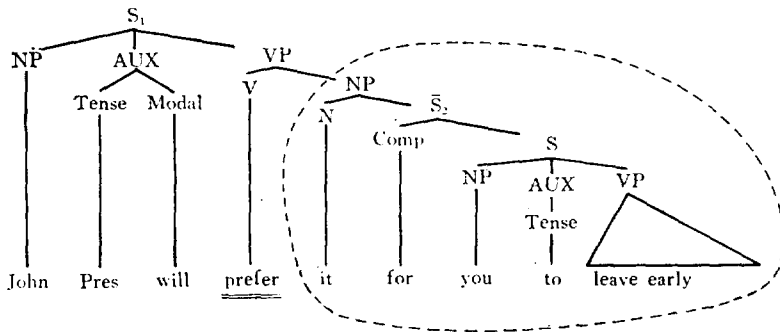
- (64) John will prefer you to leave early.
- (65) John will force you to leave early.

위의 표면구조상에는 같아 보이는 문장(64)와 (65)를 passive로 고치면 아래 문장(66)과 (67)처럼 되고 문장(68)은 비문장이 된다.

- (66) For you to leave early will be preferred by John.
- (67) You will be forced to leave early by John.
- (68) \*For you to leave early will be forced by John.

위의 문장(68)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는 이유는 다음 문장(64)와 (65)의 underlying structures인 Figure(1)과 Figure(2)의 차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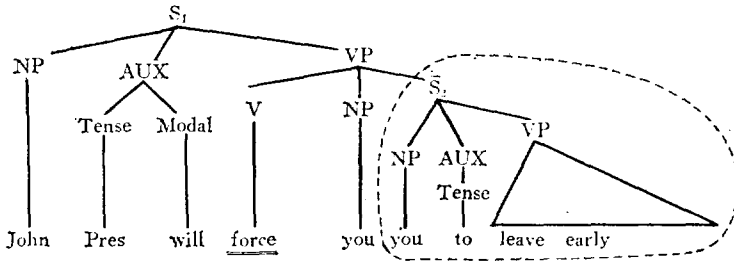
Figure 1.



12) R. W. Zandvoort (1969), *A Handbook of English Grammar* (Tokyo: Maruzen Co. Ltd), p.p.16-17

13) A. Akmajian and F. Heny (1975),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MIT Press), pp.309-314, pp.320-321.

Figure(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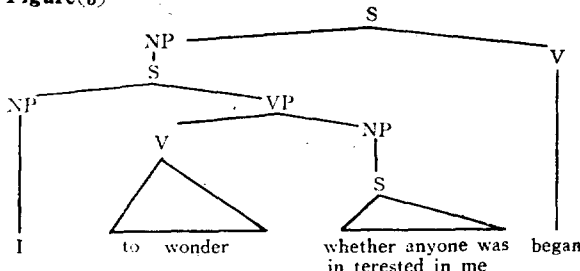
위의 Figure(1)과 Figure(2)에서 밑줄친 prefer와 force를 의식하면서 문장(64)의 embedded sentence에 해당하는 점선친 부분과 문장(65)의 그것인 점선친 부분을 보면 내면 구조상의 embedded sentence의 주어의 내용이 같지 않다. 그러므로 문장(64)와 (65)는 같은 구조가 아니고 문장(68)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예는 深層構造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表面構造 해석에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Langendean은 to-infinitive 構文을 다루면서 Infinitival Clause Separation Transformation<sup>14)</sup>이라는 Separation rule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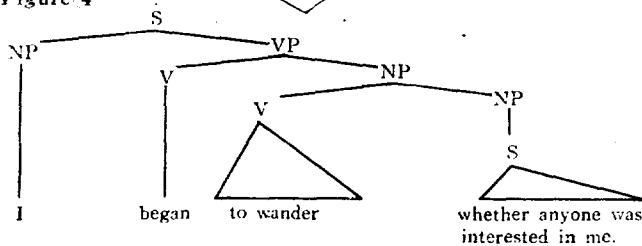
(69) I began to wonder whether anyone was interested in me

위의 문장(69)의 표면구조는 다음과 같은 심층구조 Figure(3)과 (4)의 두 과정을 거쳐서 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옳다고 말한다.

Figure(3)



Figure(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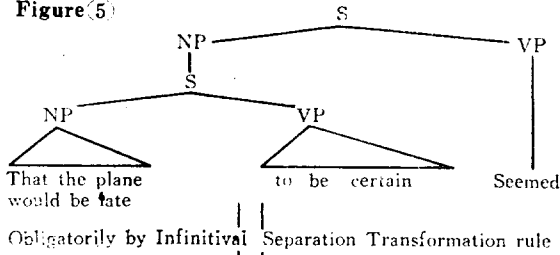


Langendean은 Infinitival separation rule과 Extraposition rule을 같이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70)을 Figure(5), Figure(6), Figure(7)을 거쳐서 나타내고 있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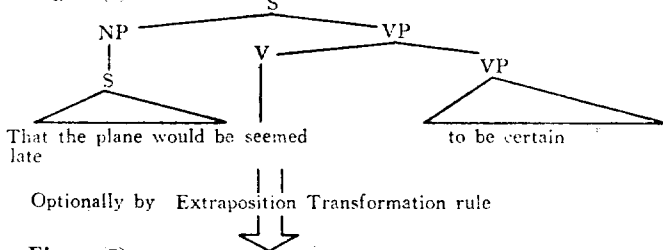
14) D. Terence Langendean (1969), *The Study of Syntax* (New York: Holt, Reinhart & Winston), pp.56-67.

15) Langendean, *Syntax* pp.5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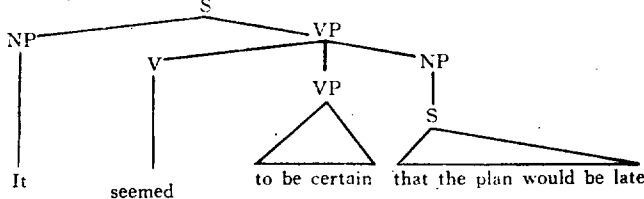
Figure(5)



Figure(6)



Figure(7)



(70) It seemed to be certain that the plane would be late.

그런데 위에 나타난 것으로 볼 때, to-infinitive와 같이 쓰이는 begin과 seem은 심층구조에서의 그 위치가 특이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나타난 몇몇 lexical verbs와 다른 심층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고, to-infinitive 構文과는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함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表面構造에서는 구분이 뚜렷하지 않지만 內面構造에서는 독특한 構造를 이루고 있는 바로 이런 특징이 happen과 seem을 happen to—와 seem to—로 묶어서 idiom처럼 다루려는 시도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해 준다.

Happen과 seem은 독립적으로 to-infinitive 構文과는 분리해서 다루어져야 하며, 또 이 동사들은 심층구조에서는 다른 lexical verbs와는 달리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표면구조에서는 機能的인 面만 돋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完全한 lexical verbs이다.

### 5. 완전한 Lexical Verbs인 HAPPEN과 SEEM

Perlmutter(1970)는 begin이라는 동사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쓰이는 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동사로 사용되는 쪽에서의 begin의 용법은 특히 happen이나 seem의 구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한바 있다. 그는 이런 내용을 밝히고자 happen과 seem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정리했다.

첫째 Happen과 seem은 문장(71)처럼 nominalized sentence를 주어로 취할 수 있고, 둘째 문장(72)처럼 There Insertion rule이 적용될 수 있고, 셋째 문장(73)처럼 weather verb인

rain 등이나 쓰이는 dummy subject "It"를 주어로 취할 수 있고, 넷째 문장(74)와 (75)에서 볼 때 subject로는 animate subject가 아닌 sentential subject를 취하는 특징이 있는 동사들이라고 설명한다.

(71) The doing out of emergency rations happened (began).<sup>16)</sup>

(72) There happened to be a commotion.

(73) It happened to r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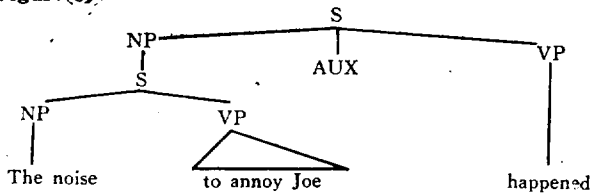
(74) The noise happened to annoy Joe. (active)

(75) Joe happened to be annoyed by the noise. (pass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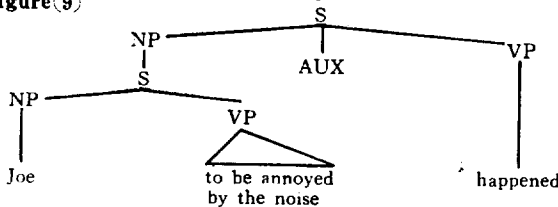
위의 문장 (74), (75)의 active, passive 관계가 active 상태에서의 happened to—의 배열이 그대로 passive에 변하지 않은 것을 이른바 semi-auxiliary verbs라고 취급한 부분인데, 문장(74)와 (75)의 전환 과정을 Figure (8), (9), (10)의 순서로 살펴보면, voice transformation은 이미 NP에서 이루어 지는 것을 알 수 있고, to-infinitive 構文과 happen과는 하나의 unit를 이룰 수 없음이 판명된다.

Figure(8) Figure(9) Figure(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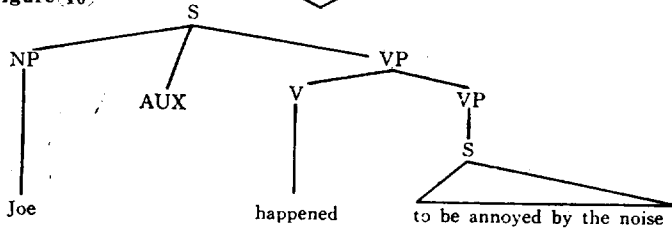
Figure(8)



Figure(9)



Figure(10)



위의 Figure (8), (9)(10)에서도 보면, happen은 underlying deep structure에서는 to-infinitive 構文과는 묶여질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이 몇가지 transformation을 거쳐 表面構造에 이르게 되면 to-infinitive 構文 앞에 排列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to-infinitive 構文 앞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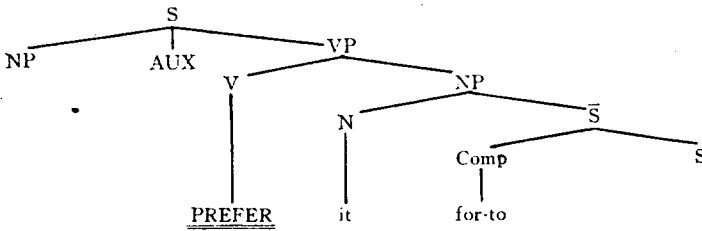
16) 이 예문들의 Original example에서는 begin이었으나 이 글의 의도에 따라 happen으로 대체해서 썼음.

놓이게 되는 다른 *lexical verbs*보다는 본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지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happen*이 지니고 있는 독립적인 의미 보다는 *to-infinitive* 構文에 예속되는 機能的인 면이 더 重要的 것같이 보일 것 같다. 이러한 별난 表面構造는 바로 *happen*과 *seem*이 深層構造에서도 독특한 構造의 特徵을 가졌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데, Akmajian과 Heny는 이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듯 “Five Different Classes of Verbs”라는 동사분류 방법을 아래 처럼 제시하고 있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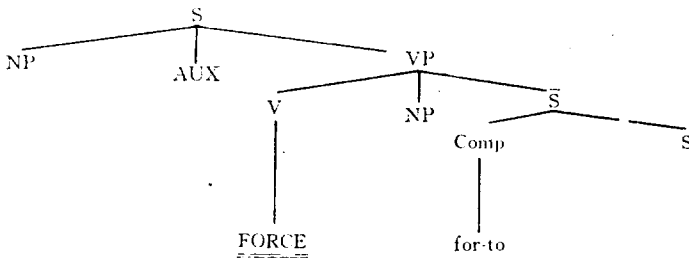
Akmajian과 Heny의 Five Different Classes of Verbs를 요약하면; (I) PREFER Class Verbs, (II) FORCE Class Verbs, (III) BELIEVE Class Verbs, (IV) CONDESCEND Class Verbs, (V) SEEM Class Verbs.

이것들의 underlying deep structures는 각기 다음과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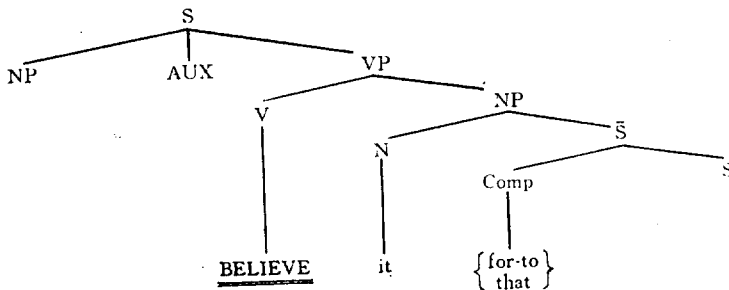
(I) PREFER(want, hate, like, hope, desire, love) Class



(II) FORCE (persuade, allow, coax, help, order, permit, make, cause)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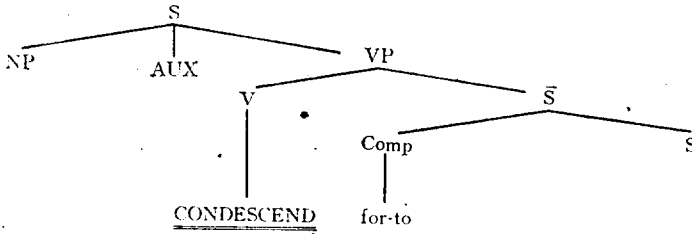


(III) BELIEVE(assume, know, perceive, find, prove, understand, imagine)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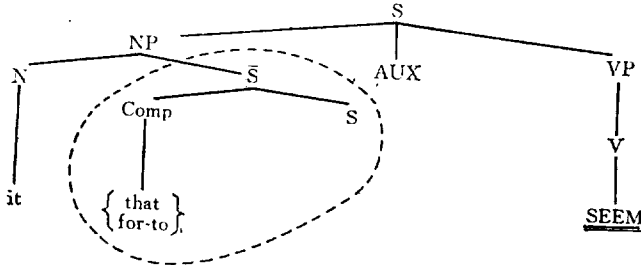


17) Akmajian & Heny, *Principles*, pp.346-348

## (N) CONDESCEND(dare, endeavor, fail, manage, proceed, refuse) Class



## (V) SEEM(appear, happen, be likely, be certain, turn out) Class



Akmajian과 Heny의 이상과 같은 동사분류에서 우리는 happen과 seem이 underlying deep structure에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위의 다섯 가지 verb classes에서 보면  $\bar{S}$ 로 표시된 embedded sentence의 underlying deep structure에서의 상태가 SEEM Class에서는 특이하다. Prefer Class, Force Class, Believe Class, 그리고 Condescend class에서는 underlying deep structure의 embedded sentence  $\bar{S}$ 가 모두 VP에 속해 있는데, Seem Class에서만 embedded  $\bar{S}$ 가 주어 NP에 속해 있다. 이런 특징이 바로 happen과 seem이 to-infinitive 構文과 묶여서 다루져서는 잘못임을 지적하는 점이다.

Seem class verbs가 underlying deep structure에서 몇몇 과정을 거쳐 表面構造에 있을 때는 대략 다른 동사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Akmajian은 설명한다.<sup>18)</sup>

첫째, seem은 to-infinitive와 쓰일때 그 seem과 to— 사이에 NP가 없다.

## (76) \*John seemed Bill to swim underwater.

둘째 seem은 prefer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경우처럼 passive, pseudo-cleft constructions, 또는 보통 NP들과 함께 쓰이지 못한다.

(77) To swim underwater would be { \*seemed / preferred } by few of us.

(78) What John { \*seemed / preferred } was to swim under water.

(79) John { \*seemed / preferred } the oysters.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seem과 happen은 underlying deep structure에서 보통 동사와는 다른 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한 차이점이 표면구조에서도 작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동사들을 바로 보기가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혼동은 변형과정을 혼동하는데서 비롯 되는 것이지, 그런 것 때문에 happen과 seem 이 lexical verbs로의 의미를 잃어

18) Akmajian & Heny, *Principles*, pp. 339-440.

야 되고 기능어로만 취급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 글에서는 happen과 seem이 완전한 lexical verbs이고 그것들을 그렇게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임을 뒷바침 할 수 있는 根據들을 찾으려 했다. 필자는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그 근거가 밝혀졌다고 보는 것이다.

6. 結 言

동사 happen이나 seem은 to-infinitive構文이나 that-clause와 함께 쓰일 때 그 자체의意味가 거이 없는 기능어(function word)의 구실을 하는 것들로 판단하기 쉽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happen과 seem은 概念的인 수준인 深層構造에서 다른 동사들과는 다른 나름대로의 매우 특이한 構造를 갖춘 동사들임에는 틀림 없으며, 이 것들이 表面構造에 排列되어 쓰이기 까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transformation processes를 거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이 동사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 이 것들 자체의 內容語(content words)로서의 의미 파악을 다른 동사들에 비해서 쉽지 않도록 영향을 주는 지는 몰라도, 기능어로 다루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 아닐 수 없다.

言語를 파악하는 것은 表面과 內面으로 구분해서 파악하는 것이 正確한 것이라는 전제가 成立한다고 할 때, 표면構造에서 특이한 모양으로 쓰여진 happen과 seem을 파악하는 데는 다음 문장 (80)을 이해하는 것처럼 해야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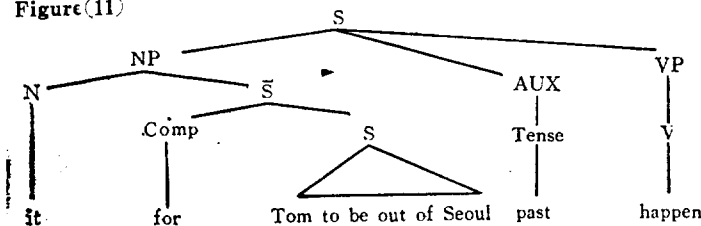
(80) Tom happened to be out of Seoul.

위의 문장(80)에서 우선(누구나 다 그럴른지는 의문이지만) “to be out of Seoul”의 행위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happened 앞에 있는 Tom으로 느껴진다. 그러면 다음 문장(81)이 연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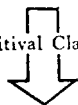
(81) \*Tom—to be out of Seoul happened.

위의 문장(81)은 acceptable sentence는 아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모순이 없고, 적어도 happened to—로 연결해서 방황하는 것은 막아준다. 위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까지는 Jespersen과 같은 전통문법 학자들도 도달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 표면구조로 쓰여지는가? 하는 것은 다음처럼 Figure (11), (12), (13)을 거쳐서 해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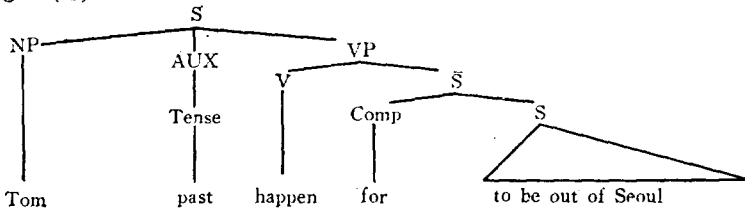
Figure(11)



Raising to Subject rule과 Infinitival Clause Separation Rules에 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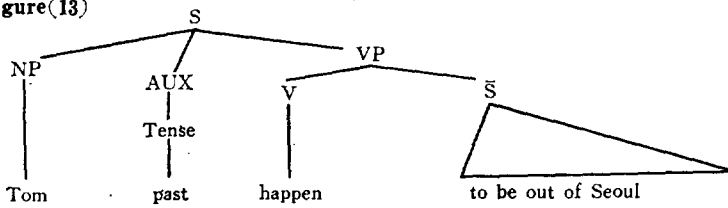


Figure(12)



For Deletion rule에 의하여

Figure(13)



위에 나타낸 순서처럼 분석함으로써 happen의 의미와 구조가 精確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 글에서는 happen과 seem이 잘못 다루어 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상과 같이 찾아 보았다. 물론 happen과 seem에 대한 완전한 해결에 이르려면 아직도 밝힐 일이 수 없이 많을 것으로 알지만 happen과 seem을 여기에 이르기 까 지나마 추적함으로써 문장을 이해하는데 감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happen과 seem類의 統辭構造가 표면에 보이는 것 처럼 간단하지는 않다는 것이 이 글에서 밝혀졌다면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희대학교  
 문리대학  
 영어영문학과